

[P4-32]

시판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및 표시오류 실태에 관한 연구

장영애, 김복희, 이행신, 이윤나, 김초일

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영양팀

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및 영양섭취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. 동시에 가공식품의 생산과 소비도 급증하여, 이들 제품이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가공식품의 식품·영양표시 사항들은 소비자가 스스로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고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다. 본 연구는 시판되는 가공식품들의 영양표시 현황 및 표시오류 항목과 그 내용을 조사·분석하여 알림으로써,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활성화 및 영양표시제도 의무화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되었다.

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대형할인마트에서, 2003년 7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동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총 2,214가지를 구입하여 제품의 표지내용을 제품명, 제품유형, 제조회사, 판매회사, 영양성분표시, 영양·건강강조표시 등의 항목으로 구분한 뒤 ‘영양성분표시’와 ‘영양강조표시’의 빈도와 그 내용 및 표시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분석하였다.

조사 결과 ‘영양성분표시’는 조사된 제품의 24.1%(533개 제품)에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고, 이를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식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유가공품 66.4%, 두부류/묵류 57.9%, 면류 55.6%, 음료류 37.4%, 당류와 식용유지는 각각 33.3%, 과자류 24.5%, 어육제품 22.7%, 조미식품 15.9%, 식육제품 14.7% 순이었다. 식품등의 표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의 ‘영양강조표시’ 건수는 총 399건(조사대상제품의 18.0%)이고, 이를 식품유형별로 보면 음료류 68.9%, 유가공품 43.6%, 식용유지 26.7%, 면류 15.5%, 어육제품 14.7%, 조미식품 14.5%, 과자류 10.0% 순으로 나타났다. 영양강조 표시된 영양소의 종류는 칼슘 33.3%, 식이섬유 10%, 비타민 C 9.7%, 비타민 D₃ 8.5%, 올리고당 7.7%, 지방 7.5%, 철 6.5%, DHA 5.7%, 엽산 3.2%의 순이었다. 영양소의 기능을 강조하거나 영양소 함량에 대한 암시적 주장 혹은 제품의 표시내용 중 특정 영양소를 그냥 나열하거나, 기타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강조 내용인 광의의 ‘영양강조표시’는 총 471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강조표시된 제품의 수를 보면, 협의의 영양강조표시가 된 제품은 199개(조사대상제품의 9.0%)였고, 광의의 영양강조표시가 된 제품은 171개(조사대상제품의 7.7%)로 한 제품에서 중복하여 강조표시를 한 경우가 많았다. 영양성분표시 내용의 적절성을 분석한 항목에서 의무표시영양소가 누락된 비율은 영양표시 된 전체 제품 533개 중 96건(18.0%)이었고, % 영양소기준치가 누락된 비율은 399건(74.9%)에 이르렀다. 영양소함량표시 관련 규정 오류는 열량 41건(7.7%), 나트륨이 30건(5.6%), 지방이 18건(3.4%), 단백질이 17건(3.2%), 탄수화물이 14건(2.6%)이었다. ‘영양소함량강조 용어’가 적절하게 표시된 것은 총 150건이었고, ‘영양소비교강조 용어’가 적절하게 표시된 것은 단 13개에 불과하였다. 따라서 영양표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양표시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·합리화하고, 적절한 개정과 소비자 및 식품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·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.